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16호 [무게 제 25459호] 주체 105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함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함도
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
장인 육군상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
소장 박정천 동지, 조선인민
군 제4군단장인 육군중장
리성국 동지, 군단정치위원인
육군소장 리영철 동지가 동행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마함도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시였다.

군무생활의 하루를 예사
로 시작하며 전투준비에
어념이 없던 군인들은 너무
도 뜻밖에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뵈우게
된 놀라움과 기쁨, 크나큰 영광과 영부
에 겨워 최고사령관되기를 성벽마냥
에워싸며 《만세!》의 환호성을 이쳐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솟구치는 눈물로 두볼
을 적시는 군인들을 사랑의 환풍에 안아
주시며 그들의 등을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한 마함도
방어대에서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게양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어대
지휘부와 여러 중대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과 따뜻한



답화도 나누시면서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침실의 난
방보장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시고 난
방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몸으
로 전투정치훈련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
다고 하시였으며 세목장을 돌아보시면서
는 태양열물가열기를 리용하여 군인들이
더운물을 마음껏 쓰게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교양실에
서 정치사상교양사업실례에 대하여 료해
하시면서 마함도방어대 군인들이 끊임
없이 자료전송체계를 리용하여 매일 당보와
군보를 정상적으로 보며 당의 목소리를

듣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곳 방
어대와 같이 직결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최
전방의 군인들은 그 누구보다 혁명적신념
이 투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사상교
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방어대군인
들을 견결한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지
닌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화생활
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는것과 함께 독
서기풍, 학습열풍을 일으키며 중대예술
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섬방어대 군인
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언제나 광만과 희열에 넘쳐 보
람찬 군무생활의 나날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군인가족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섬초소
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들리며 풍농사, 온실농사, 축산과 함께 수
산부업에도 힘을 넣어 섬초소군인들이 특
지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함도방
어대를 응시깊고 다정한 아버지와 어머
니, 말형, 말누이와 같은 지휘관들과 서
로 돕고 이끄는 정다운 동지들이 있고 따
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량이 있는 병사
들의 보금자리, 사랑과 정이 뜨겁게 흐르
고 정으로 굳게 뭉친 군인들의 정돈

고향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며 방어대의
화력타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포배치와 전투
동원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싸움이 러지면 마함도방어대
군인들이 한문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의
화력타격조직과 지휘능력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변화
되는 적정에 맞게 전투문건
수정보총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우리 식의
새로운 포병전법을 무단히
연구완성할데 대한 문제,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철저
리 갖출데 대한 문제 등 방
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
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불의에 마함도방어대
1중대 2소대 3포를 이미
차지한 진지에서 기동시켜 정해진 목표
를 타격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포
실탄시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
국을 감히 압살해보려고 어리석게 날
뛰는 원수들에게 대한 치솟는 복수심을
안고 백두산혼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온 입당백포병들은 신속히 사격준비를
끝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천천수역을 통채로 들었다는
요란한 포성이 울려 퍼지고 밀적의 포탄들이
대기를 가르며 날아가 정해진 해상목
표를 정확히 명중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